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 및 관련 변수

곽 노 선*(청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조 재 순(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이 연구는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학교장, 교육전문직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전국의 중학교에 재직 중인 기술이나 가정 교과 담당 교사, 학교장,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업 교육과 교원 인사 및 연수를 담당하는 교육 전문직을 대상으로 우편을 통해 설문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기술·가정」교과 통합에 대한 인식은 교사, 학교장, 교육 전문직 모두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통합은 되었으나 기술 교과와 가정 교과는 배경 학문의 지식 체계와 성격이 다르고, 교사 한 명이 전담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2) 교사, 학교장, 교육 전문직 모두는 「기술·가정」교과가 운영될 때 교사의 전문성 문제, 과원 문제, 자격 문제, 교과 지도 방법의 문제 순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3) 교사 자격에 대해 교사와 학교장은 「기술(혹은 가정)」 단일 자격 또는 「기술」과 「가정」 복수 자격을, 교육 전문직은 「기술·가정」과의 복수 자격을 요구하였다. 교과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교사 입장과 학생 입장에서는 분담 지도가, 학교 입장에서는 전담 지도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 4) 교사들은 「기술·가정」교과가 「기술」과 「가정」두 교과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학교장과 교육 전문직은 현행대로 통합은 하되 자신의 입장에서는 전담 지도를,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분담 지도하기를 요구하였다.
- 5) 「기술·가정」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은 교사의 개인 및 학교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기술」과 「가정」 복수 자격을 취득한 교사와 두 교과를 모두 가르친 경험이 있는 교사가 통합에 대해 덜 부정적이었으며, 운영시 예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교사, 학교장, 교육 전문직 집단간에, 그리고 교사의 개인 특성과 학교 특성에 따라 나타난 견해 차이는 교과 운영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서 상호간 의견 대립으로 이어져 교과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사의 교육 만족도와 교과 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술·가정」교과는 학생의 입장과 교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점에서 운영 방안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과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적용할 경우 교사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의 폭을 넓히고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